

野 “신검사 없던 부동산시 왜 갑자기 생겼나” 與 “4대강 감사 주심 배정 탄력 운영한 것”

여야 김항식 국무총리후보 인사청문회 공방

김항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으나 아직 결격사유가 필만한 ‘한 방’은 나오지 않은 채 비교적 평이하게 진행됐다.

아յոն 은 최대 쟁점인 병역기피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김 후보자가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특혜지원 의혹, 대법관 시절 상지대 관철 논란, 재산·증여세 탈루 의혹, 4대강 사업 감사 발표 지연 논란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언급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յոն 의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책 검증에 주력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엄호에 나섰다.

▷병역기피 의혹= 김 후보자가 전남 부동산(不同視: 두 눈의 시력 차가 커서 생기는 장애)에 관철받은 시력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공수대결은 여전히 뜨거웠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몇몇하다면 안과 진료카드와 건강검진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본 등 기초적 자료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70년, 71년 두 번의 신체검사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부동산 병역면제 판정을 받기 3개월 전인 72년 3월까지 갑자기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자

료 제출로 이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4대강 감사’ 논란=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고들며 “김 후보자가 주심 배정 순서 조작을 통해 대법관에게 감사위원을 4대강 감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4대강 ‘감사 착수 순서와 상관없이 실질 감사의 진행속도에 따라 주심 배정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맞섰다.

▷정치적 중립 및 편향성 논란=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 정권에 유리한 KBS 감사는 속전속결로 마쳤지만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국민감사 등 정부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당시 내린 판결이 누나의 영향으로 사학재단 측에 편향된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률용어가 전문적이다 보니 해석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해당 판결 자체가 그렇게 친 사학적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누나 대학 특혜 및 재산형성 논란=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통신대 특혜 논란에 대해 “선정 과정에 대한 심사 기준이나 배점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해명이 안 된다”고 의혹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항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을 거듭 제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2006년~2009년 총소득 4억3500만원보다 6400만원이 많은 4억9900만원이 지출됐다”며 “스폰서 등 다른 수입원이 있거나 재산신고에 고의적 은폐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정

무직 고위공무원들에게는 여러 비교 세 수단이 지급되는데 이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면서 “또 김 후보자는 공관에서 직원들과 식사할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비교세 수단을 사용하다 보니 지출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丁-鄭-孫, 출구전략 고민

2위 이하편 최고위원직 등 정치적 거취 부심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후보 등 이른바 ‘빅 3’진영에서는 출구전략을 놓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당권 경쟁 구도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하면서 그 누구도 1위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빅 3’진영에서는 당권 경쟁에서 밀려 2위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를 대비, 최고위원직 사퇴를 포함한 향후 정치적 거취를 위한 명분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빅 3’ 중 한 후보는 최근 측근에게 “만약 2~3위를 할 경우 최고위원직을 맡아야 하느냐”며 진로 문

제를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빅 3’가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사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사퇴 자체가 승부에 대해 불복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다 지도부에 있어야 차기 총선 등에서 당내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권 경쟁에서 밀린 ‘빅 3’는 전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과 함께 당분간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차기 대권 구도 등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빅 3’진영에서는 서로

당권을 잡지 못할 경우, 상대 후보의 상처가 가장 클 것이라는 아전인수극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세균 후보 측은 “대선을 바라보는 손 후보가 당내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대선 후보로 가는 길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고 말한 반면, 손 후보측은 “지난 2년에 대해 심판을 받은 정세균 후보가 1위를 못할 경우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 복당이 8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1위 좌절’에 따른 상처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재성 당적 논란 막판 변수되나

“96년 신한국당 입당 총선 공천 신청”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이 나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86 주자인 최재성 의원이 과거 신한국당(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물론 공천까지 신청한 것으로 밝혀지면 한나라당 전역 논란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8일 민주당 조태승 후보는 ‘민주당 대표 후보 MBC 방송토론회’

에서 “최재성 후보가 지난 96년 신한국당에 입당, 청년 조직을 맡은 것은 물론 국회의원 공천도 신청했다”며 “최 후보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열린 우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당시 가까운 선배로부터 전략공천 제안이 와서 승낙한 것 뿐”이라며 “그러나 신문 한

군데에 보도가 돼서 철회요청을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486 주자인 최 후보가 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최 후보의 신한국당 공천 신청 파문이 확산되면서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후보 측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일부 당권 주자 측에서 손 후보가 과거 한나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난한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3차례 이상 당비 납부 당원 고작 4만명

전체 당원 3%에도 못미쳐

민주당이 10·3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경선을 위해 통합민주당 출범(열린우리당과 구 민주당 합당) 시점을 기준으로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집계한 결과, 4만명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타나 체면을 구겼다.

민주당은 그동안 150만~180만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과시했으나 실제로 당비를 내는 당원은 전체의 3%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2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여론조사 경선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통합민주당 출범

시점)부터 2010년 6월까지 당비납부 당원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12만명의 30%에 불과한 수준이며 당비 납부가 이뤄진 대의원 1만2000명을 포함하더라도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당비를 3차례 이상 납부한 당원 숫자를 집계했다는 점에서 매달 꾸준히 당비를 내는 당원은 대의원을 포함하더라도 2만~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5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민주노동당의 당비 납부당원(당권자 당원) 수가 3만1500명이라는 점에서 갈간 화려한 민주당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당비 납부 당원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자 당권주자들의 의의제 등으로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표본 추출(1만9032명)도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비 납부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10년 6월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조사한 결과, 11만4000명의 당비 납부당원을 확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비 납부당원 현황은 150만 당원을 내세우며 안주했던 민주당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제라도 당원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김동철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 대표와 정무부시장·부지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9일 “정무부시장·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집계 따르면 전국 125개 지방공기업 사장 가운데 74.4%(93명)가 해당 지자체 등의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어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상태로 이어져 지난해 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42조7000억원, 적자 규모는 4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도 지난 28일 전주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있어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단체장과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때가 됐다”며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 38 기 결산 공고

재무상태표

(2010년 6월 30일 현재) (단위: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현금 및 예치금	40,077,748,525	I. 예수부채	355,644,736,634
1. 현금및예금자산	108,808,903	1. 요구불예금	4,318,354,534
2. 예치금	39,968,849,622	2. 기한부채	343,935,888,101
II. 유가증권	54,262,287,020	3. 표지어음예수금	7,370,493,999
1. 단기매매증권	41,186,287,022	II. 차입부채	5,000,000,000
2. 매도가능증권	10,382,853,595	1. 사채	5,000,000,000
3. 만기보유증권	2,693,146,403	III. 기타부채	12,983,004,373
III. 대출채권	239,325,891,091	1. 미지급금	1,689,024,558
1. 매입어음	9,828,678,792	2. 미지급비용	7,394,399,958
대손충당금	(1,098,358,076)	3. 선수수익	526,738,767
2. 대출금	246,565,402,109	4. 내국환	1,079,639,064
대손충당금	(29,883,205,835)	5. 지분	4,375,322
이연대출부대수익	(426,315,931)	6. 수입보증금	1,727,000,000
3. 기타대출채권	14,688,493,278	7. 퇴직급여충당부채	57,232,077
대손충당금	(348,803,246)	퇴직보유예치금	(41,432,976)
IV. 유형자산	15,123,454,840	8. 기타충당부채	272,727,270
1. 유형자산	18,487,608,902	9. 잡부채	273,300,333
감가상각누계액	(3,364,154,062)	부채총계	373,627,741,007
V. 기타자산	34,952,264,023	자	본
1. 보충자산	990,880,640	I. 자본금	27,700,000,000
2. 미수수익	16,670,750,763	1. 보통주자본금	27,700,000,000
3. 미수수익	2,070,071,995	II. 자본조성	(148,874,333)
4. 선급비용	10,369,697	1. 주식할인발행차금	(89,469,333)
5. 선급비용	11,000,000	2. 자기주식	(59,405,000)
6. 선급법인세	68,956,250	III. 기타보유누계액	197,160,290
7. 무형자산	183,897,827	1. 매도가능증권계액	197,160,290
8. 비업무용자산	8,609,785,782	IV. 이익잉여금(결손금)	(17,634,381,465)
9. 이연법인세자산	5,469,893,780	1. 이익준비금	400,000,000
10. 내국환	0	2. 미처분이익잉여금	(18,034,381,465)
11. 잡자산	866,657,289	자본총계	10,113,904,492
자산총계	383,741,645,499	부채및자본총계	383,741,645,499

위와 같이 공고함.

2010년 9월 30일

(주)골든브릿지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준호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8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대표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상남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발목펌프운동봉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악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렸다 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가, 우교대로 한다.
3.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를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아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있으면 반쯤 돌려주세요.

상담전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국민은행 건너편 단원도너스 2층)

온라인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농협 601154-52-335334 *예금주: 서영섭

서강빌딩 매각공고

(위치: 광천파출소 사거리 대로변)

- 물건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4, 64-6

- 면적: · 대지: 734㎡(225평) · 건물: 4,764㎡(1,412평)

두임신용협동조합

총무과 TEL. 062-263-0136

조선이공대학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2010년 유망신석학과

우리과 특징 5가지

1. 수시1차는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가능
2. 연봉 6천만원의 프랜차이즈 점장에 도전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술이야기, 상권분석, 커피마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네이바카에에 자세한 우리과 소개를 참고하세요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마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일학의 학과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